

열린무대 46

2006 부산광역시 무대공연 작품 지원 사업 선정작
2006 사랑티켓 참가작

불면증

2006. 4. 1 - 4. 30
열린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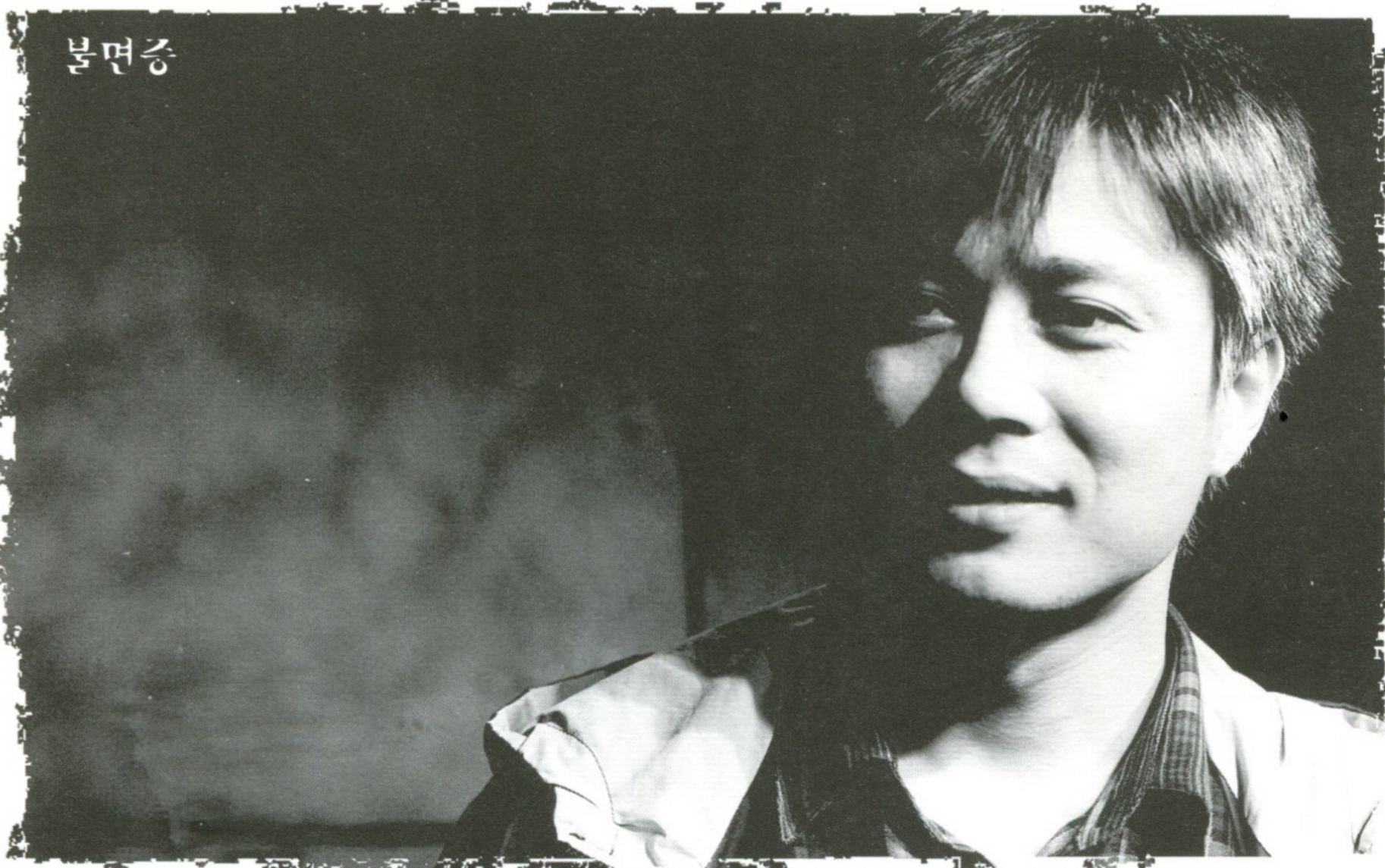
불면증



ACTOR_가 / 강원재

- 2005. 호강에 겨워 _ 경성대학교 젊은연극제
APEC 문화축전 「가락국기」
 멀망과 새로운 생명
- 2004. 체인지 Lend me a Tenor _ 극단 예우
- 1999. 돈주나 못주나 _ 경주 극단 에밀레

불면증



ACTOR_나 / 배진만

- 2005. 쇼타임
 APEC 문화축전 「길」
- 2004. 인류최초의 키스
 소파에앉아TV를보는바바리코트의죽음
- 2003. 트라우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 2002. 어두운태양



기획
손남숙

- 2005. 쇼타임 / APEC 문화축전 「길」
 멀망과 새로운 생명
- 2003. 트라우마
- 2002. 어두운 태양 / 실크커튼은 말한다



기획보
박지혜

- 2005. 쇼타임 / APEC 문화축전 「길」
- 2004.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틀린그림 찾기
- 2002. 뮤지컬 「가스펠」



무대디자인
마태훈

- 2005. 쇼타임 / APEC 문화축전 「길」
- 2004. 침입자
- 2003. 트라우마
- 2002. 자갈치 / 가락국기



소품디자인
최규식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소전공, 동 대학원 졸
- 2006. 멀망과 새로운 생명
 A love song _ club CUBA



안무
하현관

- 2005. 하현관-김세진 마임 「동상이몽」
 소라가 말하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APEC 문화축전 「길」
- 2004.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바바리코트의 죽음
- 2003. 인류최초의 키스



조명오퍼레이터
이여진

- 부산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2005. 「한여름 밤의 꿈」
 정기공연 「들통」 연출
 「멀망과 새로운 생명」 조연출
- 2004. 극예술연구회 워크숍 「파우스트」
 정기공연 「오이디프스」



조연출
신혜영

- 부경대 백경극예술 연구회 59기
- 2005. 블랙코미디 <기획>
 분장실 <연출>
- 2004. 허탕, 물고기 그림 그리는 사람



진행
안성혜

- 2005. 멀망과 새로운 생명
- 2004. 광대 연극제 「신의 아그네스」
- 2002. 열린무대/남산놀이마당 「독로이야기」
- 2001. 아우라지로 가는길



연출 / 김근수

- 2003. 트라우마 <조연출>
- 2002. 어두운 태양 <조명>
실크커튼은 말한다 <조연출>
- 2001. Happy and Dim <출연>
종이뱅기 <출연>
트라우마 <조연출>

나 가뉘? 가둔다고? 늘, 늘, 늘,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늘,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날 오해하거든. 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아주 간단한 거란 말이요. 그래도 모르겠소? “안 좋은 게 좋다”든지,
 “좋은 게 안 좋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건 진리요.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과 같은 거란 말이요.
 이제 알겠소? 좋은 게 좋은 거……, 가두다니요. 덮는 거요.
 그저 덮을 뿐이란 말이요.

「不眠症」 중에서

‘좋은 게 좋은 것’

어느 날 문득 이 말이 섬뚱하게 들린다.
 피곤했던 20대를 지나...
 무능하리 만큼 친절하고
 비굴하리 만큼 이해심 많아져 버린,
 30대에 서있는 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나또한 이 말을 진리라고 여기며
 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르다는 것이 죄가 되고
 순수하다는 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이 불편한 세상 속에 이대로 잠들어 버릴 수는 없기에

기꺼이 눈떠 총혈 된 눈으로 세상을 마주보기로 한다.

세상은 혁명이 아닌
 ‘깨어있는 나’ 들에 의해 변할 것임을 믿는다.



- 2005. 쇼타임
APEC 문화축전 「길」
- 2003.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 2002. 실크커튼은 말한다
- 2001. 트라우마
아우라지로 가는길

엉뚱한 이해 / 소비자 주권 시대의 새로운 연출

1. 우리 반 아이 둘이 3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가버렸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신입생이다. '학교가 답답'해서. '답답하다. 갑갑하다...' 하던 차에 옆에 이름도 잘 모르는 아이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뜻이 맞았다. 그래서 같이 나갔단다.

[엉뚱한 이해 :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느낌이 잘 소통되어 공감을 하면 저런 과감한 행동(?)도 가능하구나. (혼자서 학교를 나가기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2. 과거에 선생님은 스승으로서, 최고 인격적 존재로 학생이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산업화에 따른 시대적 변천은 선생님의 인격보다 얼마나 수업을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고, 오늘날은 학생의 기호와 선택, 이해관계에 따라 선생님에 대한 평가와 그의 생사가 결정되는, 학생 주권의 시대가 되었다.

[엉뚱한 이해 : 근대 이전의 시대에는 뮤즈에 의해 선택받은 천재에 의한 예술이, 근대에 들어서에는 예술작품 자체에 초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현대는, 예술작품을 소비(향유)하는 대중이 세계(자신을 둘러싼 환경)와의 관계 속에서 예술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한,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한다.]

3. 김창완의 산울림 콘서트를 TV에서 보다가 관객의 흐뭇한 표정과 웃음을 보았다. 그 음악의 무거움과 대중적 가벼움.

[엉뚱한 이해 : 아니벌써 / 내마음에 주단을 깔고 / 가지마오 / 너의 의미 / ...]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기로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 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 놓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주오

4.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을 지우고 생략했다. 삶을 위한 예술을 위해.
 [엉뚱한 이해 :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연출 김근수를 기대함.]